

38살, 다시 태어나다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이 선 희

큰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학년은 1시쯤이면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큰 아이가 입학하기 전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필요한 자격증을 찾다 영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했다. 4주 동안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재미있게 수업을 받았다. 이론 수업의 마지막은 심폐소생술이었다. 강사분께서 평소에 지병이나 안 좋은 곳이 있는 분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손을 들어 " 한 번씩 심장이 빨리 뛰는데 부정맥인 것 같아요." 고 말씀드렸다. 강사 분은 놀라시며 심각한거니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 사실 내가 검사를 안 받아 본 것은 아니다. 둘째를 낳고도 한 번 부정맥이 와 친정동네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심장 쪽으로 정밀 검사를 받았었다.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역시 부정맥은 진단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난 내가 늘 부정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딱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가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그런데 강사분이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그 날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직 정해진 수업이 남아있었고, 시험을 치고 나서 병원을 가기로 했다. 실습을 하던 어느 날, 요양원 계단을 오르는데 부정맥이 오기 전 그 느낌이 느껴졌다. 나는 얼른 쇼파에 누워 심호흡을 했다. 다행히 2~3분정도 지나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난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무서워졌다. '부정맥 = 돌연사' 라는 기사가 너무나 많아서... 실습이 끝나고 시험까지 여유가 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근처 종합병원 심장내과에 갔다. 어디가 불편하냐기에 부정맥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예민해서 심장박동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우선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다. 피검사를 하고 운동부하 검사를 했다. 하의만 입은 채 심장 부근에 기계를 부착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경사와 속도를 올리며 20여분을 달리다 힘들다고 했고 속도를 낮추어 주셨다. 그 때였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났다. 270까지 올라갔다. 난 평소에도 느꼈던지라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검사를 해 주던 간호사분은 적잖이 놀란 것 같았다.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본다고 했다.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했지만 떨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어지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오셨고 그래프를 보시곤 부정맥(PSVT)이 맞다며 날 응급실로 보내셨다. 혼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태우고 뒤에서 간호사가 밀어줬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안정제 주사를 한대 맞았다. 그런데도 안정이 되지 않아 한대를 더 맞았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딸들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다시 내과로 올라갔다. 괜찮냐는 선생님 질문에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아직 애기들이 너무 어려서요." 아주 평평 울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선생님께서는 죽을병도 아니고 간단한 시술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데 왜 우냐며 나를 위로하셨다. 난 그 때까지도 위로하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심각하던 심각하지 않던 심장이야. 심장!!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했다. 그 병원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며 진단서를 써 줄테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울음을 참으며 그 방을 나왔다. 신랑이 일을 마치고 나를 데리러 왔다. 신랑을 보자마자 또 평평 울었다. 신랑도 내가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짧은 시간에 주변 여기저기에 알아본 것 같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했지만 미안하게도 솔직히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부정맥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았다. 모두가 서울 서울을 외쳤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최대한 가까운 곳을 알아봤다. 그러다 대구에 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부정맥 쪽으로 유명하기에 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다. 진료예약만 했는데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런데 필기시험을 2주 앞두고 또 부정맥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빠르면서도 약하게 오래갔다. 근처에 있던 신랑을 불러 또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심장내과 선생님께서 오셨고 아직 시술 안 받았냐고 물으셨다. 난 웃으며 "대구에 예약 해 놨는데 요놈이 또 왔네요." 라고 말씀드렸다. 맥박은 200까지 뛰고 있었다. 신랑은 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제서야 좀 심각한 걸 느끼는 듯 했다. 안정제를 맞고 20분쯤 지나 응급실을 나왔다. 이러다 응급실 단골 되겠다며 시술하고 다시 오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고 있다.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진료날이 되었다. 오전 10시 예약이라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조금 일찍 데려다 주고 1시간 반을 달려 대구에 도착했다. 병원은 작년에 새로 지어 규모며 시설이며 입이 떡 벌어졌다. 수술을 마치고 진료 전 상담과 심전도 검사를 받고 진료실 앞에 앉아 이름이 호명되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진료를 받기 위해 온 젊은 사람을 나 밖에 없는 것 같았다. 왠지 모르게 씩씩했다. 내 이름이 불렸다. 교수님께서서는 예전 병원에서 가지고 온 심전도 그래프를 유심히 보고 계셨다. 그리고는 "심하게 뛰었네." 하시며 그동안 어땠는지 물어 보셨다. 난 시술을 해야 할 정도냐며 교수님께 물었고 교수님께서서는 시술만 받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텐데 왜 불안해하면서 살려고 하냐고 하셨다. 교수님의 말씀에 시술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병원으로 오는 차 안에서 신랑은 나에게 시술하자고 하면 바로 날짜를 잡자고 얘기했었다. 난 그 때까지도 반반이었다. 시술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고 싶진 않았다.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지 못 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시술하자고 하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네" 라는 대답이 나왔다. 교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첫 진료에 바로 시술 날짜를 잡았다. 가장 빠른 날이 한 달 뒤인 12월 9일이었다. 난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싶었다. 12일이 큰 아이 생일이라 어린이집 생일파티를 끝내고 하고 싶었는데 시술이 더 중요하다며 시술 잘 끝내고 준비해도 된다고 신랑이 날 설득시켰다. 그렇게 나의 시술은 12월 9일로 정해졌다. 진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 받았다. 약은 시술 3일전까지만 먹으라고 하셨다. 혹시나 시술시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침 일찍 어린이집을 보낸 것이 미안해 같이 놀아주려고 아이들을 조금 일찍 데리고 나왔다.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그 날을 보냈다. 그날부터였다. 시술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병원을 다녀오고 교수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수면마취가 아닌 허벅지 국소마취만 하고 시술을 한다는 것!! 겁이 많기로 유명한 나에게 국소마취라니... 불안과 걱정과 완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시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시댁에서 돌봐주기로 하셨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요일에 입원을 했다. 토요일에 시댁에서 잠을 자고 일요일 아침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갔다. 아이들에게는 며칠 전부터 지금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해 주었다. 하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였나 보다. 둘째가 탈이 나고 말았다. 내가 입원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토하고 열이 나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말을 안 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속상했다. 영상통화 속에서도 아이는 입을 꼭 다문 채 슬픈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기만 했다. 울음이 났지만 한번 터져 버리면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꼭 참았다. 다행히 큰 아이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는 언니답게 동생을 다독이고 의젓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원래는 신랑이 끝까지 같이 있을 계획이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혀 시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아이들에게 가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랑이 참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 아픈 아내에 울고 있는 아이들까지... 일요일 저녁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고 날이 밝았다. 새벽부터 이것저것 시술 전 검사를 받았다. 난 오후 2번째 시술이었다. 12시가 지나고서는 복도에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콩닥콩닥 거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침대에 누워 병원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셔할 때쯤 시술실에 도착했다. 심혈관 조영실 앞에 도착하니 바로 앞에 시술하신 분이 막 시술을 끝내고 나오셨다. 그 뒤에 바로 교수님께서 나오셨고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으시곤 걱정할거 없다고, 너무 겁 먹지 말라고, 오늘 한번 잘 해 보자셨다.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잠시, 아주 잠시 찾아왔다. 드디어 시술실로 들어갔다. 시술실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 3명과 여자 의사 2명이 있었다. 교수님께서 들어오시기 전 남자 의사가 내 사타구니에 긴 주사기로 사정없이 국소마취를 하는데 솔직히 심장시술보다 마취가 더 아팠다. 한 쪽에 3군데씩 양쪽에 6군데를 절개했다.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시술이 시작되었다. 카테터가 들어오는 느낌이 살짝 들었다. 천장에 걸려있는 커다란 컴퓨터 화면을 보니 카테터들이 혈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다. 교수님과 의사들의 대화들이 오고갔다. 어느 순간 부정맥이 오기 전 그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내 부정맥의 원인이 그 놓이었나 보다. 흔히들 지진다고 하는 시술은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았다. 정말 신기했다. 시술이 끝나고 다시 한번 지진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요동치지 않았다. 시술은 성공적인 듯 했다. 교수님께서 시술이 잘 끝났다고 하셨다. 몇 군데 시술했는지 여쭙더니 한군데면 충분하지 않냐며 한군데 밖에 없었다고 대답해 주셨다. 이렇게 나의 고통을 끝난 줄 알았다. 1시간여의 시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미소를 띄며 시술실에서 나왔다. 밖에서 마음 풀이하며 기다리던 신랑도 웃고 있는 날 보고서야 안심하는 듯 했다. 안에서 시술을 받고 있는 나보다 밖에서 마냥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신랑이 더 힘들지 않았을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기 전과 후의 사진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이다. 들어갈 땐 긴장해서 울상, 나올 때는 후련함에 미소가... 시술만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카테터를 넣기 위해 절개를 했던 부분이 잘 아물도록 최소 6시간은 누워 있어야했다. 정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말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다. 부정맥 시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마사지 롤러가 달린 침대를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백번도 더 한 것 같다. 병실로 돌아온 뒤 신랑을 아이들에게 보내고 고박 4시간을 누워있었다. 4시간이 지나고 전공의가 와서 잘 아물었는지 확인을 했다. 아직 아물지 않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2시간을 또 누워있었다. 드디어 절개했던 부위가 아물고 옆으로 돌아누울 수 있었다. 살 것 같았다. 왜 수면 마취 없이 국소마취만 하는지 그제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확실히 회복이 빠르고 시술하면서 환자에게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시술에 더 효과적인 것 같다. 그 날 밤은 맘 편히 푹 잔 거 같다. 그렇게 입원 둘째 날이 지나가고 퇴원 날이 밝았다. 퇴원 시간에 맞춰 신랑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왔다. 환자복을 입은 모습을 아이들이 어색해 할까봐 미리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처음 와 본 곳이 신기했는지 여기저기 둘러보는 아이들이 마냥 귀엽기만 했다. 퇴원수속을 하러 1층으로 가니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했다. 나에게도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다시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1주일 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외래 진료차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교수님은 불편한 곳이 없냐고 물으셨고 너무 편안하다고 대답했다. 이제는 평소처럼 운동 열심히 하면서 정상인들과 같이 지내면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말라고 하셨다. 교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시술을 받은 지 9개월이 조금 더 지났다. 교수님 덕분에 아직 단 한 번의 부정맥도 날 찾아오지 않았고, 난 보통 사람들처럼 커피 한잔의 여유도 즐기고 밤으로는 운동도 다닌다. 앞서 말했듯 부정맥은 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병이다. 미친 듯이 뛰다가도 병원에만 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바로 옆에 누워있던 사람도 그랬다. 비록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고 침대에 누워 불안감에 울기도 했지만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 들었다.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부정맥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은 있지만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부정맥은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닌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 모두가 다 극복 할 수 있으니 모두 힘내시기를...

